

▶ 공지사항 ◀

- 3월 15일 화공스님 법회 - 유마경
- 3월 20일 초하루 신중기도
- 3월 22일 회주스님 법회
- 불타 예술제 안내
4월 12일 불타 예술제 1차 리허설
5월 3일 불타 예술제 2차 리허설
5월 16일 불타 예술제 - 오후 7시 30분 관음전
- 봉축법요식
5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관음전

※ 초과일 연등 \$100, 영가등 \$ 50, 사업등(형편껏).

▶ 기도 동 참(3월 8일 - 14일) ◀

- 법등: 홍주연 원인식 박병란 유지철 이충일 홍정숙 김옥경
- 인등만등: Sara won Brandon Won
- 보 시: 김택영 신동준(초) 무명
- 대중공양: 김택영 이정법심(과일) 원자현심 박도성(떡)
원자현심(꽃) 진여성(떡) 현심화(과일) 현심화(떡)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저녁 8:00-9:30
매주 일요일 오전 10:00-10:50, 오후 2:00-3:00
- 영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 불교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2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참선수행: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3월 15일 제 31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유마경의 세계

유마경은 초기 대승경전이라 일컫는 반야경의 공경 사상을 계승하는 대승경전이다.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흔히 부처님의 유명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유마경은 부처님의 제자는 물론 아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유마거사라는 일반인이 주인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붓다의 가르침이나 성현의 가르침에 문외한 또한 아니다. 유마경은 출가자를 위한 경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가불자들에게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불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불자들을 위한 법률서라고 할 수 있다.

유마거사는 자산가로서 재산과 학식은 물론 명망이 높은 사회의 유명 지도자였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언제나 재산을 풀어 굶주리며 아픈 사람들을 구했으며, 분란이 일어나면 그는 지혜로써 사람들을 제어하고 통솔했다. 그러니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는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나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나름대로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처님의 십대제자는 물론 많은 대승보살들 또한 유마거사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각자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곳에 유마거사가 나타나 그들의 수행이나 삶의 태도, 사상 등, 어느 것 하나 그의 지혜에 의해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지적당하지 않은 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마거사는 자산가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써도 가히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 병이든 이유는 수행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한다. 이에 부처님의 지혜의 상징으로 흔히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분부에 의해 병문안을 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유마경의 내용이다.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과 성현의 지혜를 얻은 유마거사와의 대화가 유마경의 절정을 이룬다. 여기서 불완전한 육신을 지닌 중생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람된 삶,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이상세계라는 가르침이 밝혀진다.

유마경의 가르침에 불이법문(不二法門)이란 가르침이 있다. 자기중심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원론적인 대립적 사고로부터 초월함으로써, 비록 한쪽 발은 현실세계 속에 깊숙이 빠뜨리고 있지만, 미래에 내 디딜 다른 한쪽 발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이상세계—에 남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써 나를 운전해 다다른다는 가르침이다. 우리의 삶을 비참 내지는 처참하게 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이원론적인 대립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부부간의 이혼, 남·녀간 혹은 종족간의 차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등 우리의 삶을 고통의 나래로 빠뜨리는 원흉이 바로 이원론적인 대립적 사고라는 것이다.

인생의 비극은 비교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려면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다. 과연 현실세계에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관은 대부분 이원론적 비교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사물·사건을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사물을 대립적 관계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겪는 그 대립적 관계, 즉 이상과 현실, 성공과 실패, 번뇌와 보리[지혜], 흑과 백, 선과 악 등의 대립적 가치관은 자기중심적 분별에서 생겨나는 차별심으로 본다. 이 차별심이라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붓다의 가르침 즉 불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를 증득하는 것을 그 종지로 삼는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써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바세계를 더 이상 사바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세계로 삼는 것이다.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행위는 고치려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불보살의 가피력을 그저 열심히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욕망을 근본으로 한 어리석은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 불자가 바라는 불보살의 가피력은 지혜에 의해서 만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 유마경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